

세계적 양산디의 환상적인 골포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네티원 주중그림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광주 “팬들에 한가위 패승 선물”

“유종의 미 거두겠다.”

광주 상무가 추석연휴 첫날인 22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 현대를 상대로 삼성 하우젠 K-리그



## 내일 울산 상대 시즌 마지막 홈경기

## 다양한 경품 제공...전남, 경남과 한판

2007 시즌 마지막 홈경기를 펼친다. 이후 10월 14일까지 4경기가 남아있지만, 모두 원정이다.

광주 상무는 올 시즌 마지막 홈경기를 찾은 관중들에게 멋진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다.

최근 3연패 후 지난 수원원정에서 리그

1위 수원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 1위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든 광주의 상승세는 윌리엄 대표 김승용의 중원 장악에 있다.

여기에 남궁도, 이진호, 여승원으로 구성된 공격 삼각편대로 위협적이다. 수비는 베테랑 김영근을 축으로 한태유, 구경현이 좌·우측을 튼튼히 막아내고 있다. 마지막

골문은 ‘거미손’ 최무림이 책임진다.

그러나 울산은 광주에겐 상당히 버거운 상대다. 광주는 유독 울산만 만나면 작아진다.

역대전적에선 2승 3무 9패로 절대적 열세를 보이고 있고, 총 14번의 맞대결에서 단 4득점에 불과하다.

울산은 특히 최근 컨디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특급 용병 마차도와 공격수 이종민이 위협적이다. 여기에 미드필드 오장은 의 허리질일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다.

이 밖에 9위로 추락한 전남드래곤즈는 같은날 오후 7시 광양전용구장에서 최근 5연승을 질주하며 3위로 올라선 강적 경남과 힘겨운 한판승을 벌인다.

한편 광주는 이날 홈 폐막전에 다양한 경품을 준비했다.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에게 경기전과 하프타임에 구단 사인물 110개를 나눠주고, 종료 후엔 당일 사용된 K-리그 공식 시험구도 관중들에게 내놓는다.

### ■ 삼성 하우젠 K-리그 2007 중간순위 (20일 현재)

순위	팀	승점	승	무	패	득	실	차
1	성남	44	13	5	3	35	15	20
2	수원	44	13	5	3	32	19	13
3	경남	37	11	4	6	36	24	12
4	울산	36	9	9	3	26	19	7
5	포항	30	8	6	7	21	25	-4
6	전북	29	8	5	8	29	26	3
7	서울	29	6	11	4	16	13	3
8	인천	29	7	8	6	23	23	0
9	전남	25	6	7	8	20	21	-1
10	제주	23	6	5	10	19	27	-8
11	대전	22	5	7	9	22	23	-1
12	부산	19	4	7	10	18	27	-9
13	대구	17	4	5	12	27	38	-11
14	광주	12	2	6	13	11	35	-24

또 입장권 추첨을 통해 대형 벽걸이 TV, 드림세탁기, 김치냉장고, 차량용 네이게이션, 자전거 10대, 인라인스케이트 10개, 보성다비치콘도 숙박권, 엘리시아 외식권, 롯데시네마 영화관람권 등도 증정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신지애 대추격 공동 3위

## 선두에 1타차 따라붙어

### KLPGA 선수권 2R

올 시즌 우승컵이 없는 최나연(21·SK텔레콤)이 신세계배 제29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선수권대회 둘째 날 공동 선두로 나섰다.

최나연은 20일 경기도 이천 자유골프장(파72·6천414야드)에서 열린 2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보기 2개를 곁들여 3언더파 69타를 쳐 중간합계 7언더파 137타를 스코어 카드에 적어냈다.

전날 선두였던 여지애(23·김영주골프)도 2타를 줄이며 최나연과 함께 리더보드 상단에 자리했다.

하지만 올 시즌 6승을 거두며 KLPGA 절대 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신지애(19·하이마트)가 5타를 줄인 6언더파 138타를 때리며 공동 2위에서 공동 3위로 뛰어올랐다.

올 시즌 수차례 역전 우승을 거둔 신지애의 성격으로 봐서 공동 선두 최나연과 여지애에는 더욱 긴장을 하게 됐다.

최나연은 전반에 버디 2개를 보기 2개로 맞바꿔 타수를 줄이지 못했지만 후반에는 보기 없이 버디 3개를 보냈다.

신지애는 3번홀(파4)에서 1타를 잃어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이후 16번홀(파3)까지 7개의 버디를 쓸어 담아 한 때 단독 선두로 치고 올라가기도 했다.

하지만 신지애는 17번홀(파4)에서 짧은 파퍼트를 놓치면서 1타를 잃었고 뒤에서 출발한 최나연과 여지애가 이 홀에서 버디를 잡아내 공동 3위로 내려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전남·인천 FA컵 4강서 재격돌

FA컵 2연패를 노리는 전남 드래곤즈가 인천 유나이티드와 결승 문턱에서 재격돌한다. 포항 스틸러스는 제주 유나이티드와 맞붙는다.

지난 대회 우승팀 전남은 20일 오후 8시 30분 서울 잠실운동장에서 열린 2007 하우젠 FA컵 전국축구선수권대회 준결승 대전 추천 결과 홈 그리폰들이 광양전용구장에서 인천과 만나게 됐다.

전남과 인천은 지난 대회 4강에서 만나 연장까지 0-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전남이 4-3으로 이겼다.

## 홍명보 코치 8경기 출전 금지

홍명보(38) 올림픽축구대표팀 코치가 중징계를 받아 축구계가 시끄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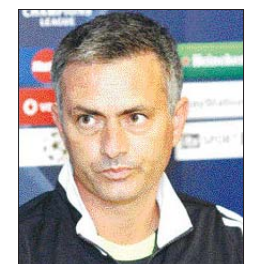
지난 7월 아시안컵축구 일본전 도중 관중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홍 코치는 19일 아시아축구연맹(AFC) 상벌위원회 결정으로 ‘아시아 차원의 공식 8경기 출전 금지’라는 징계를 받았다.

합계 퇴장당한 김 배여진 전 감독은 3경기, 코사 골키퍼 코치는 6경기다.

우선 왜 이렇게 징계 수위가 높은지 의아하고 그 다음엔 당사 실효도 없는 징계를 굳이 내린 이유가 궁금하다.

AFC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과징을 적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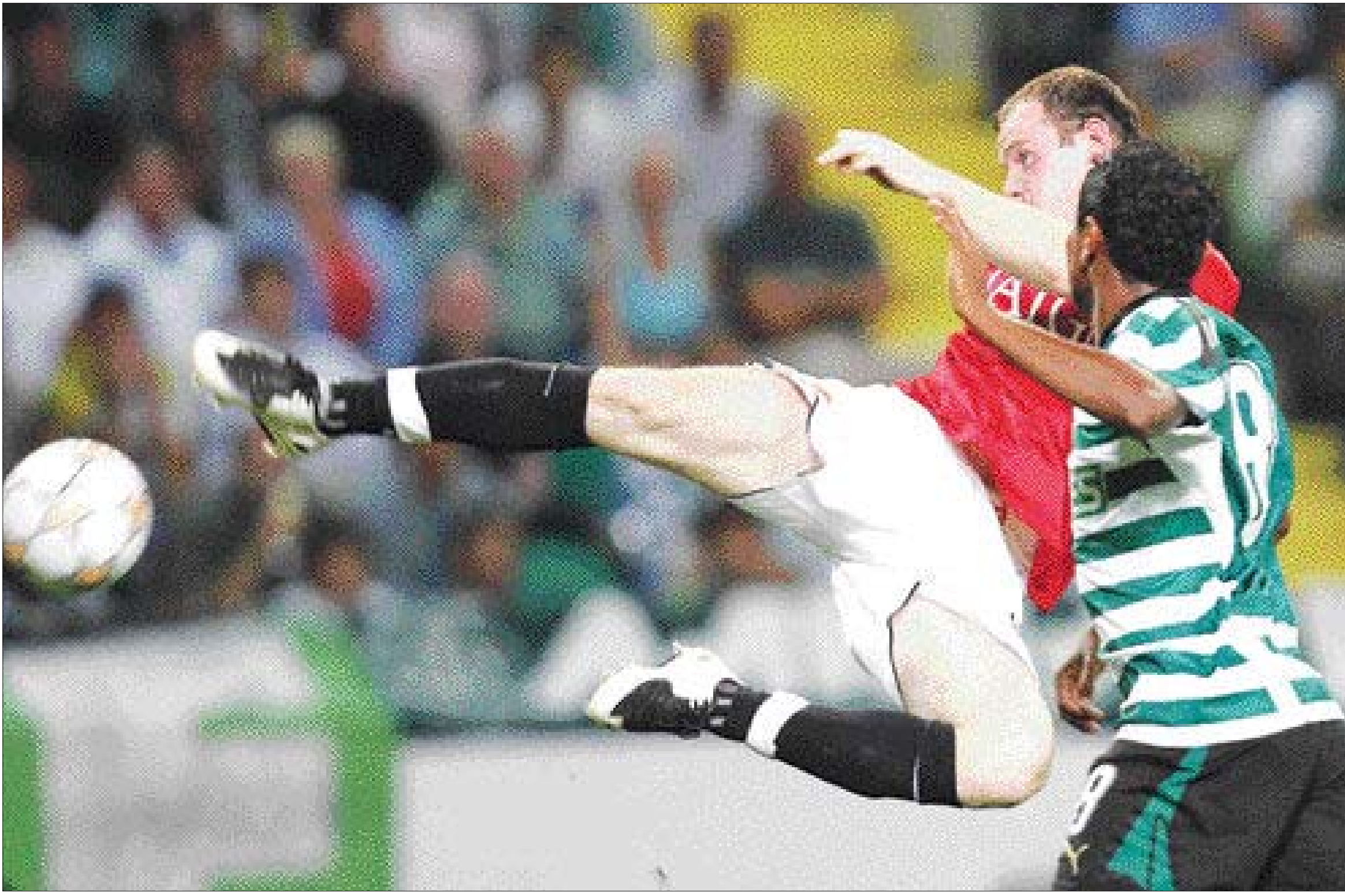
## 첼시 무리뉴 감독 사퇴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 첼시의 조제 무리뉴(44·사진) 감독이 사퇴했다.

첼시는 20일 홈페이지에 “무리뉴 감독이 구단과 결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BBC는 무리뉴가 19일 홈페이지에 열린 2007~200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약체 로렌보리(노르웨이)와 1-1로 비긴 뒤 주중 텔레리 등 베테랑 선수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감독직을 그만둔다고 전한 것으로 보도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웨인 루니(왼쪽)가 20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본선 F조 1차전 포르투갈의 스포르팅 리스본과 경기에서 멋진 발리 슈트를 시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호날두 결승골...맨유 개막전 축포

## 스페인 바르셀로나, 프랑스 리옹 3-0 완파



박지성(26) 소속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포르투갈의 스포르팅 리스본(이하 스포르팅)을 잡고 2007~200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개막전에서 승리했다.

맨유는 20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포르투갈 리스본 조제 알발라데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챔피언스리그 본선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후반 17분 터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선제 결승골로 스포르팅을 1-0으로 꺾었다.

스를 투톱으로 세우고 스포르팅 출신인 호날두와 나니를 양쪽 날개에 배치한 맨유는 전반에는 스포르팅의 중거리포 공세에 시달리며 끌려갔다.

후반 들어 조지력을 정비해 중원 패스워크가 살아난 맨유의 해결사는 호날두였다. 호날두는 후반 17분 웨스 브라운이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자 문전으로 다이빙하며 헤딩 슈팅으로 연결, 골망을 흔들며 친정팀 사냥의 선봉에 섰다.

맨유는 이날 홈에서 디나모 키예프를 2-0으로 누른 AS로마에 이어 F조 2위에 올랐다. 맨유는 다음달 3일 AS로마를 올드 트래포드로 불러들여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2005~2006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섰던 FC 바르셀로나(스페인)는 조별리그 E조 개막전 홈경기에서 프랑스의 올랭피크

리옹을 3-0으로 완파하고 기본 총계 첫 걸음을 내디뎠다.

전반 22분 상대 수비수의 자책골로 앞서간 바르셀로나는 후반 37분 신성 리오넬 메시의 추가골에 올 시즌 이적해 온 티에리 앙리가 경기 종료 직전 쐐기골을 꽂으며 대승을 마무리했다.

같은 조 레인저스(스웨덴)도 홈 경기에서 슈투트가르트(독일)를 2-1로 꺾었다. H조에서는 아스널(잉글랜드)이 세스크 파브레가스와 로빈 판 페르시, 에두아르두 다실바가 릴레이 골을 터트리며 세비야(스페인)를 3-0으로 완파하며 조 선두에 올라섰다.

슬라비아 프라하(체코)는 스테이우아 부쿠레슈티(루마니아)를 2-1로 제압했다.

또 G조의 PSV에인트호벤(네덜란드)은 CSKA 모스크바(러시아)를 2-1로 눌렀고, 페네르바체(터키)는 홈에서 인터밀란(이탈리아)을 1-0으로 꺾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레알 마드리드 팀 상품가치 ‘최고’

### BBDO사 “1조4천억원 가치”

### ■ BBDO 선정 유럽 축구클럽 상품가치 순위 (단위: 유로)

순위	구단	상품가치
1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10억6천300만
2	바르셀로나(스페인)	9억4천800만
3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9억2천200만
4	첼시(잉글랜드)	8억2천800만
5	AC밀란(이탈리아)	8억2천400만
6	바이에른 뮌헨(독일)	7억2천700만
7	인터밀란(이탈리아)	7억1천500만
8	아스널(잉글랜드)	7억1천200만
9	유벤투스(이탈리아)	7억900만
10	리버풀(잉글랜드)	6억4천500만
11	리옹(프랑스)	4억5천300만
12	AC로마(이탈리아)	4억4천100만
13	실레소(독일)	4억3천600만
14	아약스(네덜란드)	3억6천800만
15	라인저스(스웨덴)	3억3천200만
16	발렌시아(스페인)	3억1천900만
17	벤피카(포르투갈)	3억1천800만
18	셀틱(스코틀랜드)	3억1천500만
19	슈투트가르트(독일)	2억8천800만
20	브레멘(독일)	2억7천500만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전통명문’ 레알 마드리드가 ‘축구중가’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누르고 유럽 최고의 상품가치를 가진 축구클럽으로 선정됐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 세계적인 광고대행사 BBDO가 발표한 ‘유럽 축구클럽 상품가치 리스트’를 인용해 ‘레알 마드리드가 10억6천300만유로(약 1조4천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바르셀로나(9억4천800만유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9억2천200만유로), 첼시(8억2천800만유로)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BBDO가 매진 상품가치 순위는 각 기업들이 유럽 구단에 스폰서 등 중장기 투자를 고려할 때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